

강진군, 농업 경쟁력 드론으로 높인다

멸구류 적기방제 예찰 드론으로 선제적 대응

강진군은 지난 20일부터 멸구류 적기 방제를 위한 사전 예찰을 드론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시기에 중국에서 기류류 타고 날아오는 멸구류(흰등멸구, 벼멸구)를 효과적으로 방제하려면 비래시기, 비래량, 비래횟수, 주비래시기 등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을 정밀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눈으로 들어가서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매일 같이 많은 면적을 확인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효과적인 방제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멸구류 다발

생 의심지역(해안가, 간척지,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발생 시기에 맞춰 담당 직원들이 주기적 예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농업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하여 폭넓은 예찰을 하고 있다.

특히 멸구류의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초기 발견이 중요한데 예찰용 드론을 이용하면 200~300m 상공에서 고화질 카메라를 활용하여 대면적의 많은 필지에 대하여 적은 피해부위(변색지점)라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예찰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안준성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작물연구팀장은 "강진군은 국토 서남단에 위치하여 중국에서 불어오는 멸구류에



폭넓게 노출되어있는 지역이다. 무엇보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들녘에 떨어지는 멸구류에 대한 예찰이 중요하다"며 예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강진군은 멸구류 방제를 요하는 필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나 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자발적이고 꾸준한 예찰을 당부하였다. 8월 중순 기준 벼멸구 방제를 요하는 밭도는 조성장은 주당 100마리, 중만생종은 주당 20마리, 흰등멸구는 주당 400마리 이상이면 방제를 하여야 한다.

강진=김영일 기자

'목포(愛)가을(藝)페스티벌(樂)' 막 오른다

오는 30일 부터 목포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되는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목포(愛)가을(藝)페스티벌(樂)'의 막이 오른다.

'목포(愛)가을(藝)페스티벌(樂)'은 목포시가 문화와 예술의 도시 목포의 가을 문화예술축제 행사를 하나로 모아 브랜드화한 것으로 9월 부터 10월까지 매주 금·토·일에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극단 갯돌과 세계마당아트진흥회가 주최하는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은 그동안 마당극, 인형극, 마임, 탈놀이, 국악, 서커스, 콘서트, 로컬 스토리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순수민간 예술축제로 손꼽히고 있다.

올 해 19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은 오는 30일 부터 9월 1일 까지 3일간에 걸쳐 해외초청 9팀을 비롯

해 54개팀이 원도심 길거리 마당무대에서 관을 벌인다.

30일 개막놀이 '별난만세'에서는 목포의 근대시민을 재현한 거대 인형과 현재의 시민이 함께 목포 4.8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유쾌하고 신명나는 난장을 연다.

또 중국, 몽골, 볼리비아, 캐나다, 브라질 등의 민속음악과 춤으로 꾸며지는 해외공연과 국내 현대무용단 모던테이블의 '다크니스 폼바', 강릉단오제보존회의 '강릉관노가면극', 국악그룹 타고의 '원스트링즈' 등 60여 공연이 관객을 찾는다.

특히, 지난 해 목포의 정체성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모았던 '목포 로컬스토리'는 올해는 고하도 감화원터, 조산미곡창고, 양동교회, 대반동 방파제 등 총 4곳에서 열려 목포의 근대역사문화 스토리와 어울린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장흥군, '청태전' 품질 평가회 개최

장흥군은 23일 군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된 '청태전' 품질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품평회에는 청태전 제다업체, 품질평가 심사위원을 비롯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군은 이번 품질 평가를 통해 청태전의 안정적인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방침이다.

청태전의 품질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야별 차 전문가와 지역 다회(茶會) 임원 등 12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심사위원들은 외형, 맛물색, 향기, 우린 잎 등의 관능검사와 열수추출물 시음 결과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했다.

장흥군은 청태전의 명확한 품평 기준 확립과 농업유산으로서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이번 품질 평가회 결과를 활용할 예정이다.

청태전은 구멍 뚫린 동전과 같은 모양으로 빚어 발효시키는 전통 발효차다.

장흥군은 2007년부터 지역 청태전 제다업체와 손을 잡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상품화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돼 국가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권청자 전국 차 생산자협회장은 "청태전은 장흥만의 특별하고 차별화된 소중한 농업유산"이라며, "품질 고도화와 표준화를 통해 세계적인 명차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군,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 시행

제8332부대 제2세대 방문 무안군은 지난 22일 무안읍에 소재한 제8332부대 제2세대 방문하여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는 행정기관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

전입을 미루는 군부대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담당 직원이 직접 군부대를 찾아가 전입지원금 등 전입 혜택을 안내하고, 주소 이전 서비스를 제공했다.

담당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바로 전입인고를 마친 부사관들은 "시간이 없어 전입인고를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군인신분에서 지역주민으로 정착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목포대, 초당대, 폴리텍 대학교와 산업체, 기관 사회 단체들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주소이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96년대로 방문하여 주소이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영암군 시설꽃고추 지역특화작목으로 집중육성한다



영암군은 사계절 국민 양념채소로 애용되고 있는 시설꽃고추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집중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꽃고추는 멜론, 수박 등과

더불어 영암군의 대표 시설과채류이다.

영암 시설꽃고추는 60여 농가 40ha가 재배하고 있고, 청양계 꽃고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꽃고추 작목반이 구성되어 공선출하를 함으로써 품질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 도매시장에서도 영암 꽃고추를 최고로 인정하고 있다.

재배작형은 시설하우스에 7월에 정식하여 난방을 하지 않고 다음해 1월 까지 수확하는 역제재배 작형이다. 군

에서는 고품질 꽃고추 생산을 위하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시행중인 1시간 1특화작목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고품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적기적량 관수 스마트관개시스템 설치, 고온기 수정물 향상 시설하우스 콜네트·차광도포제 사업, 수확기 연장 기능성 다점온케튼사업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군, 잔디 재배 활성화 간담회 개최

함평군은 지난 22일 월야면사무소 회의실에서 9개 읍·면 잔디 재배자 및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잔디 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잔디 재배 관련 동향을 비롯해 내년도 보조사업, 잔디 생산자 단체 구성 등을 논의했다.

또한 잔디 불법소각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예지물 적치

공간 확보 등 위탁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은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잔디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며, "잔디 재배자들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현장 맞춤형 잔디 육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군 8개 마을, 우수녹색마을 선정

문내면 신창마을 등 해남군 8개 마을이 산림청 주관 '소각산불 없는 우수녹색마을'로 선정됐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논과 밭두렁, 그리고 영농부산물물의 불법 태우기를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마을 공동체의 서약을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남에서는 문내면 최초로 녹색마을에 지정된 신창마을을 비롯해 삼산면 상가마을 등 8개 마을이 선정돼 우수녹색마을 현판식을 가졌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에는 신창마을 현판식이 박영선 문내면장을 비롯해 김양근 신창마을이장 등 주민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완도=김광수 기자

'완도사랑상품권' 판매 순항

지난달 1일 발행한 완도사랑상품권이 7월 말부터 일일 평균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 증가하며 2개월 만에 총 판매액 4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 22일 기준, 총 판매액은 4억 5

천만 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도내 지자체의 1분기 평균 판매액이 6억 7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발행이 두 달도 채 안 된 완도사랑상품권의 판매

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완도사랑상품권은 법정 화폐와 달리 지자체가 발행하고 관리하는 지역 화폐로 정부와 전남도에서 발행 비용의 할인율을 지원한다.

상품권은 5천원, 1만원, 3만원, 5만원 권으로 4종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